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전기 공모전' 2년 연속 수상

'적극성, 북극성이 되다' 대상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1년 광주 학교 밖 도전기 공모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배출했다.

센터 소속 청소년 7명이 최근 2021 학교 밖 도전기 공모전에 참여해 대상(1명·광주시장상), 금상(3명·광주시장상, 광주시교육감상), 은상(2명·광주시의회장상), 동상(1명·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A군은 '적극성, 북극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도전기를 썼다. 도전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37명의 멘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비전멘토링을 수행했고, 5개월간 책 162권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미디어 페스티벌 PPT대회에 참여해 교육감상을 받는 등 마케팅스타트업 CEO가 되고자 하는 꿈을 위해 도전하는 과정을 풀어냈다. 센터는 지난해에도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2년 연속 대상자 배출과 함께 모든 상장부분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에서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황수주 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센터에서 대상청소년을 배출하게 되어 정말 기쁘며, 수상한 모든 친구들도 정말 대견하게 생각한다. 또한 코로

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힘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 당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문적 발전 이뤄 국제 위상 키울 것"

동신대 한승훈 교수, 한국국가법학회장 선출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승훈(사진) 교수가 제29대 한국국가법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교수는 최근 동신대 투게더홀에서 열린 '한국국가법학회 제7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결과 신입 회장으로 당선됐다.

한 신입회장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국내 학술대회를 넘어 국제 학술대회로 학회의 외연을 넓혀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갖는 한국국가법학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법 계통이 비슷한 독일, 일본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며 "교류를 더 확장시키고 법에 관한 폭넓은 정보와 전문성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 손실보상위원회 위원, 광주지법 민사조정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법학회 상임이사 및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이론 분야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의료법인 가평의료재단

광주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의료법인 가평의료재단(이사장 김수영)이 최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원과 김수영 이사장의 개인기부금 3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의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기탁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광산구 운남 진아리채 리버힐즈 '안전아파트' 선정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운남 진아리채 리버힐즈 아파트가 '안전아파트'로 선정됐다.

운남진아리채리버힐즈 아파트는 최근 공동주택 분야에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정받아 인증패를 받았다. 광주에서 2번째이며 광산구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방범 및 안전시설·감시성 등 91개 항목을 점검해 광주 광안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직접 현장을 방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진단·분석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체계, 감시성, 접근 통제의 용이성, 영역성, 안전시설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전체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선정된다.

박원 입주자대표회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모두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운남진아리채리버힐즈 아파트 제공>

강만석 창원기공 대표

송원대에 5000만원 장학금

강만석(사진) ㈜창원기공 대표가 20일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에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창원기공 강만석 대표는 이날 기탁식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은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행사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송원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 및 기존 재학생들에게 '희망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제4회 서재필 언론인상에

한겨레 안관옥 선임기자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선정위원회는 20일 제4회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자로 안관옥(59·사진) 한겨레신문 전국부 선임기자를 선정 발표했다.

안 선임기자는 199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한 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5·18 정신의 전국화에 기여하는 보도를 해왔고, 농민과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일관된 저널리즘 정신을 실천해왔다.

서재필 언론인상은 송재 서재필 선생의 자주 자강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이후 매년 광주·전남지역 중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와 심헌문화재단,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600만원이 수여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X 스페셜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팔도보상(재)	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15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뉴스(재) 45 똑똑구조대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 스페셜 55 다큐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스포츠 특선 <앵글러의 시간이 돌아왔다! 배스게임>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교육대전환 특별기획 3부작 난처한 아이수업(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나의 살던 고향은 55 더 나은 삶, 우리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네트워크특선 빅부리더			00 뉴스브리핑
3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연(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슈퍼 히어로(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우정봉조의 인사투어(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50 사랑의 파배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00 방과 후 슬램 스페셜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05 성탄기획 육탄방의 문제아들	30 PD수첩	00 그 해 우리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KBS결착 다큐멘터리 밀착취재 마이네이션 17인의 코리아특급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중계식 서울국제음악제-중소리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리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까지
07:00 코코몽2	12:10 바닷가 사람들(재)	18:00 생방송 뚱뚱이 해결단
07:15 출동! 슈퍼왕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0 하트가 빛나는 순간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재)	19:30 한국의 돌레길
07:45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9:50 극한직업(재)
08:00 당동명 유치원	15:25 클래스 e	20:40 세계테마기행 <로스트 킹덤-칸의 전설, 몽골>
08:30 엄마 까투리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강원도로 오시드래요>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00 마사와 곰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법버스 타요	16:15 오드몐, 이상한 아이들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25 모프의 위대한 모험	23:05 건축탐구 - 집
09:30 추피와 친구들	16:30 당동명 유치원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턱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 (음 11월 18일 癸卯) ☎ 010-9790-8237

<p>36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48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72년생 일방적이거나 경직되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 84년생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96년생 간단명료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06, 74</p>	<p>42년생 깊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54년생 국면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66년생 열린 마음으로 논의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78년생 기본적인 관계를 원만히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90년생 점점 더 경제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02년생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7, 84</p>
<p>37년생 보원만 한다면 달성하리라. 49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61년생 바람직한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73년생 변화의 폭이 크니 참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85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라. 97년생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25, 54</p>	<p>43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다. 55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라라. 67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79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이니라. 91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정대로 처리하면 무난하니라. 03년생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1, 59</p>
<p>38년생 소상하게 알아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50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니라. 62년생 작은 흠결이 보이지만 염려할 바는 아니다. 74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86년생 당해 문제가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98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7, 85</p>	<p>32년생 실익이 없다면 기여를 필요로 없다. 44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되어질 수도 있다. 56년생 정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처지에 서게 된다. 68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80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 92년생 서두름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49, 79</p>
<p>39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니라. 51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63년생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건이 보인다. 75년생 타격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87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겠다. 99년생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7, 61</p>	<p>33년생 이익 앞에서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필히 영광이 따르리라. 45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나 실행하지 말라. 57년생 무리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69년생 약간의 더 무력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81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 해야겠다. 93년생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곽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45, 98</p>
<p>40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52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64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는 판국이다. 76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88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00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60</p>	<p>34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46년생 선수를 면발히 살펴보고 안배를 해야겠다. 58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70년생 현실 상 있는 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이 희망이 썩으리라. 82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느니라. 94년생 전전긍긍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4, 95</p>
<p>41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53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주의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89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01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 두라. 행운의 숫자 : 15, 62</p>	<p>35년생 반드시 맑은 정신으로 행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47년생 신음이 자분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59년생 힘든 만큼 비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71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 83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95년생 심하게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주라. 행운의 숫자 : 18, 66</p>